

원유시장 동향

이 달 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진 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1. 원유가격 동향

국제 원유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허리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미 멕시코만 지역 원유 생산 및 정유시설들의 가동이 재개됨에 따라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12월의 한파 내습과 올해 초에 있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가스 분쟁을 계기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가스 분쟁으로 촉발된 원유가 상승은 이란의 핵개발을 위한 핵봉인 제거(1월 10일)와 나이지리아 테러에 의한 생산 차질 발생(1월 17일) 소식에 의해 급격한 상승 추세로 이어졌다. 1월 평균 두바이 가격은 \$58.45/배럴로 작년 연평균 가격에 비해 18.4%(\$9.08/배럴) 상승하였다.

2월 들어서는 나이지리아 공급 차질 물량이 44만 b/d로 확대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세계 석유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의 충분한 원유재고 수준에 힘입어 두바이 가격은 1월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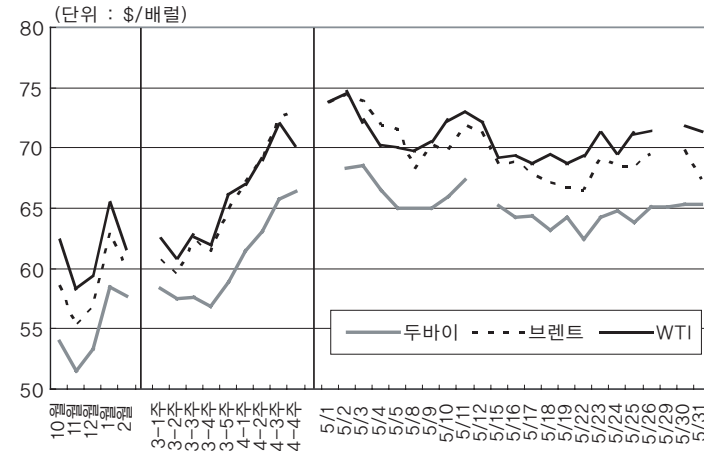
\$0.76/배럴 하락한 \$57.69/배럴을 기록하였다.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원유가격은 3월에도 강보합세를 유지하였다. 나이지리아 공급 차질 물량이 한 때 63만b/d까지 늘어나고 이란 핵문제도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월 8일 개최된 OPEC 정기 총회에서 OPEC은 기존의 생산쿼터인 28백만b/d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통적으로 OPEC은 2/4분기 계절적 수요 감소에 대비해 감산을 해 왔으나 이란과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 정정불안으로 야기된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감산 논의를 차기 총회로 연기한 것이다.

4월 들어 국제 원유가격은 또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란 핵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지속, 그리고 미국 휘발유 시장 강세 등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로 인해 4월 평균 두바이 가격은 전월대비 \$6.33/배럴 상승한 \$64.22/배럴을 기록하였다.

이란은 4월 11일 핵 발전을 위한 원자로 연료에 쓰이는 3.5%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 성공하였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서방국가들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미국은 이란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

[그림 1] 주요 원유의 가격변동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소하는 한편 독자적인 이란제재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 서 통과시켰으나, 이란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농 농 축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이란 핵 문제 악화로 인해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심화되어 4월 원유가 급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휘발유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MTBE에 대한 사용 제한 시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휘 발유 공급차질 우려가 심화되었다는 점도 4월의 원유 가격 상승에 한 몫을 하였다. 즉,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2005)의 발효로 인해 발암성 물 질로 논란이 일고 있는 MTBE에 대한 사용이 5월 6일

부터 금지되고 첨가제가 에탄올로 전환됨에 따라, 휘발 유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5월에도 국제 유가는 앞서 언급한 강세 요인들이 여 전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며 다시 전월에 비해 소폭 상 승(브렌트유 제외)하였으나, 더 이상의 악화 요인이 발 생하지 않아 중순 이후에는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미국 의 여름철 휘발유 성수기를 앞두고 휘발유 수입이 증가 하고 정제가동률이 상승하여 생산이 늘어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세를 주도해 온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공급차질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유가가 전월 대비 \$0.98/배럴 상승한 것이다.

〈표 1〉 주요 원유의 월별 가격

유 종	2005년	2006년					최고가격
		1월	2월	3월	4월	5월	
두바이	49.37	58.45	57.69	57.89	64.22	65.20	68.58(5/3)
브렌트	54.30	63.01	59.92	61.96	70.51	69.78	74.45(5/2)
WTI	56.46	65.47	61.62	62.86	69.55	70.90	74.55(5/2)

원유시장 동향

특히 5월에는 볼리비아의 자원국유화 포고령이 발표(5월 1일)된 시점에서 원유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WTI 가격은 5월 2일 \$74.55/배럴이었고, 두바이 가격은 5월 3일 \$68.58/배럴이었다. 지난 3월 베네수엘라가 유전 국유화를 발표한 데 이어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은 볼리비아가 천연가스 및 석유산업 국유화 조치를 전격 발표한 것이다.

이란 핵문제로 인한 석유시장 불안감은 5월에도 계속되었다. IAEA 사무총장이 이란 핵문제 관련 보고서를 UN 안보리에 제출함에 따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 회담(5/2~5/9)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나고, 이후 이란 핵문제 해결에 관한 대응책은 EU에 위임되었다. EU는 5월 15일 브뤼셀에서 이란에게 제시할 중재안을 '당근과 채찍'에 기초하여 작성하였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5월 24일 런던에서 EU가 고안한 중재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수개월을 끌어온 이란 핵문제와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요인들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음에 따라 유가는 5월 중순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5월에 제기된 유가 약세 요인으로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에 따른 휘발유 시장 안정화와 주요 기관들의 세계 석유수요 둔화 전망 등을 들 수 있다.

2. 석유수급 동향

가. 원유생산 동향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석유시장보고서(OMR) 6월 호에 따르면, 올해 5월 세계 원유생산량은 8,496만b/d

를 기록함으로써 올 1/4분기에 비해서는 19만b/d 증가, 그리고 4월에 비해서는 45만b/d 증가하였다.

올 1/4분기에 천연가스액(NGL) 등을 제외한 OPEC의 원유생산량은 총 2,987만b/d로 조사되었고, 4월에는 2,961만b/d, 그리고 5월에는 2,983만b/d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 4/4분기 생산량(2,994만b/d)에 비해 각각 7만b/d와 26만b/d, 11만b/d 감소한 수준이다. 이처럼 작년에 비해 OPEC의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나이지리아 정정불안으로 인한 공급차질 발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올 초부터 발생한 나이지리아 니제르 삼각주 소요사태로 최대 63만b/d까지 공급차질이 발생하여, 작년 4/4분기 245백만b/d에 달하던 나이지리아 생산량은 올해 4월 213만b/d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OPEC 국가들의 5월 생산량은 나이지리아의 생산량이 생산능력 증대에 따라 다시 227만b/d로 확대되고 사우디와 이란의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4월 대비 22만b/d 증대되었다. 사우디의 5월 생산량은 전월보다 10만b/d 증가한 935만b/d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여전히 자국 쿼터량에 비해 25만b/d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우디의 생산량은 작년 4/4분기나 올 1/4분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사우디가 앞으로 구매자 요구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는 전략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최근 줄어든 수요를 반영해 사우디가 생산량을 줄인 것이다. 이란도 전월에 비해 15만b/d 많은 양을 생산하였지만 여전히 쿼터물량(411만b/d)에는 27만b/d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UAE와 베네수엘라는 5월 생산량이 전월에 비해 각각 5만b/d, 3만b/d 감소하였고, 이라크 역시 4월 생산량이 200만b/d까지 늘었다가 5월에 다시 191만b/d로 감소하였다. 이라크의 5월 생산량 감소는 이

〈표 2〉 세계 원유생산 실적

(단위 : 백만b/d)

	4Q/05	1Q/06	4월	5월
사우디아라비아	9.42	9.57	9.25	9.35
이란	3.89	3.84	3.69	3.84
이라크	1.66	1.71	2.00	1.91
UAE	2.60	2.61	2.61	2.56
쿠웨이트	2.49	2.51	2.51	2.51
카타르	0.82	0.82	0.83	0.83
나이지리아	2.45	2.23	2.13	2.27
리비아	1.65	1.67	1.70	1.70
알제리	1.37	1.36	1.36	1.36
베네수엘라	2.65	2.63	2.63	2.60
인도네시아	0.94	0.92	0.92	0.92
소 계	29.94	29.87	29.61	29.83
Total NGLs	4.27	4.35	4.35	4.41
Total OPEC	34.21	34.22	33.97	34.24
미국	6.62	7.18	7.17	7.26
멕시코	3.72	3.78	3.81	3.73
노르웨이	2.92	2.93	2.65	2.90
러시아	9.64	9.53	9.66	9.67
중국	3.59	3.68	3.68	3.67
브라질	2.02	2.06	2.08	2.09
오만	0.78	0.76	0.78	0.75
앙골라	1.39	1.42	1.43	1.34
Total Non-OPEC	50.04	50.55	50.55	50.72
총 계	84.25	84.77	84.51	84.96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June 2006.

라크 북부 유전지대의 석유생산 및 수출시설에 대해 계속되는 사보타주와 테러 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Kirkuk) 유전의 원유생산은 터키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테러 공격으로 인해 약 30만b/d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현재 OPEC국가들 중에서 쿼터몰량보다 많은 양을 생산해 내고 있는 국가들은 사우디와 UAE, 쿠웨이트, 카타르, 리비아, 알제리이며, 반면 더 적은 양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이란과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이다. 특히 OPEC 내 대표적인 강경보수와

원유시장 동향

인 베네수엘라는 쿼터량이 322만b/d인데 비해 5월 생산량은 260만b/d에 그치고 있다.

계절적으로 석유수요 비수기임에도 OPEC은 6월 1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기존 생산쿼터인 28백만b/d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OPEC은 시장의 과잉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감산 논의를 차기 총회로 연기한 것이다. 이것은 OPEC이 현재의 유가가 감산을 단행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최근 지정학적 불안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공급차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감산 논의를 9월 차기 총회로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감산 여부를 본격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5월 현재 OPEC 국가들의 여유생산능력은 300만b/d이나 이 중 통계가 불확실한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여유생산능력은 186만b/d에 불과하다. 이 중 사우디만이 145만b/d의 여유생산능력이 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의 여유능력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우디의 역할은 점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의 알 나يمي(Al-Naimi) 석유장관은 최근 자국이 생산능력 증대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생산량을 1,250만b/d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여유생산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비OPEC 국가들의 5월 생산량은 50.72백만b/d를 기록함으로써 올 1/4분기와 4월 생산에 비해 17만b/d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작년 허리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미국 멕시코만에서의 생산량이 회복되고, 러시아의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멕시코만에서의 생산 차질 물량은 현재 약 25만b/d(멕시코

만 전체 생산량의 17%)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5월 원유생산량은 올 1/4분기와 4월에 비해 각각 8만b/d, 9만b/d 증가하였다. 러시아도 기존 발견유전의 회수 증대에 노력한 결과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5월 산유량은 967만b/d를 기록함으로써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였고, 올 1/4분기에 비해서는 14만b/d 증가하였다.

노르웨이는 올 1/4분기에 293만b/d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나 4월 265만b/d로 감소하였다가, 5월에 다시 290만b/d 수준으로 생산량을 회복하였다. 이처럼 5월에 생산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해 유전의 유지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OPEC 5월 생산은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와 중동, 멕시코에서는 감소하였다. 브라질의 5월 생산량은 올 1/4분기와 4월에 비해 각각 3만b/d, 1만b/d 증가한 209만b/d를 기록함으로써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멕시코는 5월에 373만b/d를 생산함으로써 전월대비 8만b/d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앙골라 역시 5월 생산량이 134만b/d를 기록함으로써 올 1/4분기와 4월 생산량에 비해 각각 8만b/d, 9만b/d 감소하였다. 오만도 올 1/4분기에 76만b/d, 4월에는 78만b/d를 생산하였으나, 5월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75만b/d를 생산하였다.

나. 석유재고 동향

OECD 국가들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1월에 938.5백만 배럴이었으나 4월에는 1,004.8백만 배럴을 기록함으로써 석 달 연속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57.4백만 배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4월 원유 재고

는 정제시설의 유지보수로 인한 원유 투입량 감소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OECD의 4월 휘발유 재고는 여름철 휘발유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2달 연속 감소한 369.7백만 배럴이었고, 경유 및 난방유를 포함한 중간유분 재고도 3달 연속 감소한 498.1백만 배럴이었다. 휘발유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15.8백만 배럴 낮은 수준이지만, 중간유분 재고는 작년 동월에 비해 16.7백만 배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석유제품 재고는 4월에 1341.2백만 배럴을 기록함으로써 1월에 비해서 79.5백만 배럴 감소하였으나, 3월에 비해서는 중유 재고 증가에 힘입어 4.1백만 배럴 증가하였다.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를 합한 OECD 국가들의 총 석유재고는 4월에 2,631백만 배럴을 기록함으로써 전월대비 1,700만배럴, 전년 동월 대비 5,800만배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석유재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IEA는 석유재고의 공급지속일수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전월과 같은 54일로 추정하였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현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작년 10월부터는 5년 평균 범위의 상한선을 훨씬 초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미국 원유 재고는 5월 중순 경 원유수입 감소 및 정제가동률 상승의 영향

으로 4월에 비해 180만 배럴 감소한 343.9백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수입이 증가하면서 5월 마지막 주에는 346.6백만 배럴로 회복되었다. 6월 첫째 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정제가동률이 전주대비 1.7% 상승하면서 다시 소폭 감소한 345.7백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과거 5년 평균 재고 수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4.2%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름철 휘발유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 휘발유 재고는 4월 중순 이후 7주 연속 증가하며 이 기간 휘발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휘발유 재고는 그동안 혼합재(blending component) 등의 수입 증가와 정제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6월 첫째 주에 213.1백만 배럴을 기록함으로써 4월 평균에 비해 천만 배럴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과거 5년 평균 재고 수준을 크게 하회하던 미국 휘발유 재고는 7주 연속 증가에 힘입어 평균 재고 수준을 회복하였다(그림 3) 참조).

경유와 난방유를 포함한 미국 중간유분 재고도 5월 중순 경 수입 증가에 힘입어 4월 대비 160만 배럴 증가하였다. 5월 중순 이후에도 중간유분에 대한 계절적 수요 감소와 국내 생산 증가로 인해 재고는 6월 첫째 주 현재 4주 연속 증가를 기록하며 122.8백만 배럴로 조

〈표 3〉 OECD 상업용 석유 재고 현황

(단위 : 백만배럴)

	2006년 1월	2월	3월	4월
원 유	938.5	969.5	991.9	1004.8
휘발유	399.6	403.0	380.4	369.7
중간유분	551.1	536.9	502.6	498.1
총석유제품	1,420.7	1,403.7	1,337.1	1,341.2
총석유재고	2,637.8	2,650.8	2,613.9	2,631.0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June 2006.

원유시장 동향

〈표 4〉 최근 미국 석유재고 동향

(단위 : 백만배럴)

	4월 평균	5월					6-1주	전년대비 ²⁾
		5-1주	5-2주	5-3주	5-4주	5-5주		
원 유	345.7	347.0	346.9	343.9	345.6	346.6	345.7	+4.2%
휘발유	203.4	205.1	206.4	208.5	209.3	210.3	213.1	-1.2%
중간유분	115.5	114.7	114.6	117.1	118.9	120.7	122.8	+8.7%
가동률	87.2%	90.2%	89.8%	89.7%	91.4%	91.0%	92.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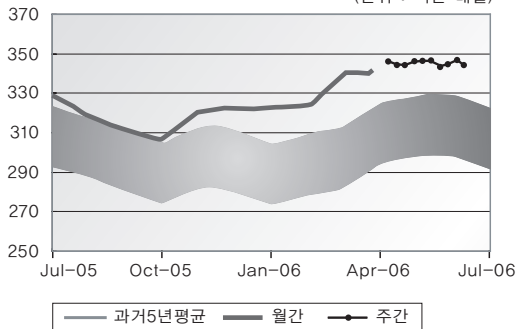
주: 1) 상기 재고에는 SPR 제외, 주말 기준

2) 전년대비는 6-1주 기준

자료: EIA/DOE

[그림 2] 미국 원유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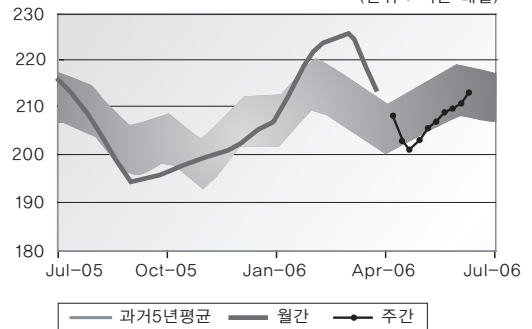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배럴)



자료: EIA/DOE

[그림 3] 미국 휘발유 재고 추이

(단위 : 백만 배럴)



자료: EIA/DOE

사되었다. 중간유분 재고 역시 전년 동기간에 비해 8.7%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 석유소비 동향

IEA는 올 1/4분기 세계 석유소비량이 8,501만b/d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8,500만b/d를 넘어섰다. 이는 작년 4/4분기 대비 81만b/d 늘어난 수치이며, 작년 평균에 비해서는 135만b/d 증가한 것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경제회복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50만b/d 늘어난 600만b/d를 소

비하였고, 비OECD 국가 중에서는 인도가 전분기대비 17만b/d 늘어난 274만b/d를 소비함으로써 1/4분기 세계 석유수요 증가를 주도하였다.

이처럼 올 1/4분기에 세계 석유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경제가 예상치 못한 호황기를 누리면서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예상 성장률을 지난해 9월 전망치인 4.3%에서 4.9%로 0.6% 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표 5〉 세계 석유소비 동향

(단위 : 백만b/d)

	2005년	4Q05	1Q06	2Q06*
총 OECD	49.66	50.02	50.33	48.64
북아메리카	25.42	25.40	25.10	25.49
한 국	2.17	2.22	2.27	2.01
일 본	5.41	5.51	6.01	4.96
멕시코	2.05	2.07	2.06	2.06
비 OECD	34.00	34.19	34.67	34.90
구소련	3.80	3.89	3.87	3.68
중 국	6.59	6.76	6.71	6.96
인 도	2.59	2.57	2.74	2.69
브라질	2.18	2.20	2.16	2.22
세 계	83.66	84.20	85.01	83.54

주: *는 추정치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June 2006.

하지만 IEA는 세계 경제성장이 여전히 수요 강세 요인이긴 하나, 고유가로 인해 석유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 올 2/4분기 세계 석유수요를 1/4분기 대비 147만b/d 낮춘 8,354만b/d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2/4분기 석유 수요가 다시 전분기 대비 105만b/d 감소한 496만b/d를 기록하고, 구소련의 수요도 19만b/d 감소한 368만b/d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보조금 규모 감축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IEA는 보고 있다.

2/4분기가 계절적으로 석유수요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감소 전망의 구체적인 이유로 구소련의 수요가 순

수출 증대로 감소하고, 미국의 석유수요도 제품가격 상승 및 천연가스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고유가는 실제로 미국 석유제품 소비 감소를 불러왔다. 미국의 1월 중간유분 수요는 올 겨울 온화한 날씨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해 4,146천b/d를 기록함으로써 전년 동월에 비해 약 16만b/d 감소하였다. 6월 1주 수요도 전년에 비해 3.1%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해 가장 눈에 띄는 감소를 기록한 것은 역시 휘발유 수요였다. 작년 1월부터 6월 1주까지 휘발유 수요 증가율은 8.47%를 기록한데 비해, 올해는 6.01% 증가에 그쳤다. 또한 올해 6월 1주의 휘발유 수요도 작년 같

원유시장 동향

〈표 6〉 미국의 석유제품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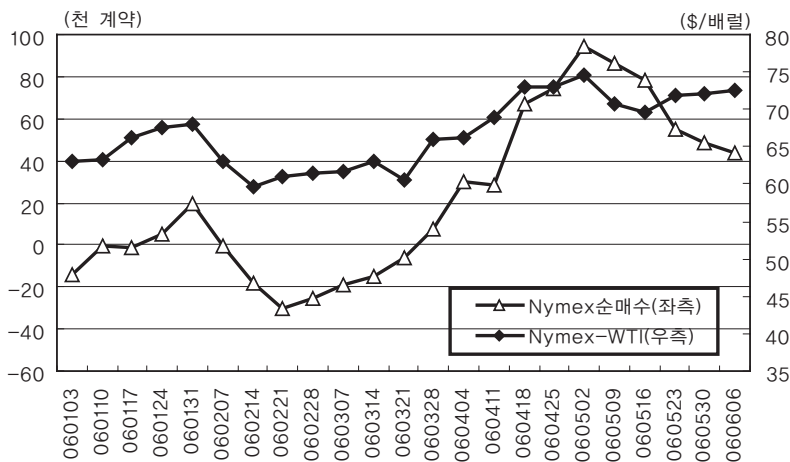
(단위 : 천b/d)

	1월	2월	3월	4월	5월	6-1주
휘발유	8,879 (8,784)	9,012 (8,861)	9,081 (9,072)	9,127 (9,147)	9,324 (9,337)	9,413 (9,528)
중간유분	4,146 (4,303)	4,266 (4,254)	4,158 (4,336)	4,084 (4,212)	4,102 (4,073)	4,080 (4,206)
총석유제품	20,408 (20,715)	20,700 (20,850)	20,664 (20,683)	20,500 (20,384)	21,100 (20,419)	20,701 (20,998)

주: ()는 전년도 실적

자료: EIA/DOE

[그림 4] Nymex 투기자본과 유가



자료: Nymex, CFTC

은 기간에 비해 1.22%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5월에서 6월로 넘어오면서 총 석유제품 수요도 감소하여 6월 1주 현재 총 석유제품 수요는 전년에 비해 1.43%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휘발유 공급이 균형을 보임에 따라 미국 휘발유 시장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허리

케인으로 인한 피해 등 대규모 공급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휘발유 재고 증가에 따른 수급우려 완화로 휘발유 시장은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름 성수기 동안 수요가 강세를 보이거나 예상치 못한 정제시설 가동 차질이 발생할 경우 휘발유 시장은 또다시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

3. 투기자금 동향 분석

Nymex의 대형 투기자금에 의한 WTI 선물거래 순매수 규모는 금년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가스 분쟁과 이란의 핵봉인 제거 소식에 자극을 받으며 1월 31일 2천만 배럴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2월 중순까지 미 북동부 지역의 온화한 날씨 지속과 풍부한 미 석유재고 수준이 수급측 안정요인으로 작용하며 3주 연속 순매수 규모는 일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월 하순 이후 다시 소폭 증가 추세로 반전된 순매수 규모는 나이지리아의 생산차질 물량 확대와 이란의 농축우라늄 생산 성공 소식에 이란의 석유공급 차질 발생 우려가 문제시되며 3월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여름철 미국 휘발유 공급 차질 우려 등에 따라 5월초 선물시장의 순매수 규모는 9,410만 배럴에 이르렀고 이와 맞물려 WTI 선물가격도 5월 2일 배럴당 74.6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유가에 따른 각 기관들의 수요둔화 전망이 제기되고 재고 증대 등에 따른 매도세 유입에 힘입어 순매수 규모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확산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다른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투기자금이 빠져나가며 유가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6월 6일 기준 WTI 원유선물 순매수(비상업거래) 규모는 4,388만 배럴로 떨어짐으로써 5주 연속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4. 원유시황 평가

올해 5월까지의 국제 유가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 급증에 의한 타이트한 시장 수급 상황에서 이란 핵문제 및 나이지리아 생산 차질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미국 석유제품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와 이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전년 평균가격 대비 23%(두바이유 기준) 상승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의 기본 수급상황은 변하지 않은 채, 산유국들의 정정 불안, 허리케인 시즌 임박 등의 불안 요소에 의한 투기 및 펀드 자금의 영향으로 유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격을 떠받치는 펀터멘털 측면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이러한 큰 변동성은 일정부분 한계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볼 때 향후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이란 핵문제 진행상황 및 이라크 정세,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물량 회복 여부, 허리케인에 의한 공급차질 발생 여부, 고유가에 의한 수요둔화 정도, 그리고 기타 투기자금 동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자 6월 말로 예정된 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추가 인상(5%?5.25%)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하였다. 이 경우 달러화 강세를 초래함과 동시에 투기자금이 이탈하는 등 단기 원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기적으로도 금리 인상은 경기회복 속도를 둔화시켜 석유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기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란 핵문제로 인한 갈등은 현 상태에서 큰 진전 없이 당분간 지속되어 공급차질 우려감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원유시장 동향

독일 외무장관이 6월 2일 합의한 핵 협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공식적인 회신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강경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이라크의 석유생산은 200만b/d 수준까지 증대했으나, 새로운 내각구성(5월 20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기반시설 등에 대한 테러도 지속되고 있어 석유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반군들의 석유시설 테러 뿐 아니라 납치 등 테러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제한 헌법 개정 움직임에 의한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어 현 공급차질이 단기간 내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은 금년 북대서양에 8~10개의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이 중 4~6개는 강력한 허리케인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공급차질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선부는 석유공급시설 피해 예상은 곤란하다고 하겠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작년에 비해 높은 120~17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비OPEC 공급량 증가 전망은 80~110만b/d 수준이므로, 올해 수급 상황도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유가임에도 중국은 건실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수요가 기대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석유시장은 더욱 타이트해 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투기자금 유입은 대체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상 우려에 따라 달러화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어 허리케인 같은 돌발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증시와 상품시장에 투자 하던 펀드자금들이 다시 금융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겨울로 갈수록 계절적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문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성 자금 유입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하반기 국제 원유가격은 허리케인 등에 의한 대규모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두바이유 기준으로 \$65/배럴 내외에서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 천b/d)

구 분		2005년 평균	2006년				2006년 평균
			1/4	2/4	3/4	4/4	
IEA1)	석유수요	83.7	85.0	83.5	84.7	86.4	84.9
	비OPEC 공급	50.1	50.6	50.7	51.3	52.3	51.2
EIA2)	석유수요	83.9	85.2	84.1	85.5	87.7	85.6
	비OPEC 공급	50.1	50.7	50.4	51.0	51.7	51.0

자료: 1)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June 2006.
2)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June 2006.